



독일 · 프랑스, EU협약 개정안 발표

김세중 선임연구원

- 12월 5일 독일 메르켈 총리와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각국 예산에 대한 중앙집권적 감독과 적자재정 기준을 위반한 국가에 대한 자동적 제재 등을 내용으로 하는 'EU의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 (Stability and Growth Pact)'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함.
 - 이번 개정안은 2차 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의 경제정책 협력 방안 중 가장 포괄적인 내용 중 하나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 재판소에 의해 집행되는 공동규율이 각국의 경제 주권에 우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오늘날 유로존의 상황을 야기하고 있는 재정 불균형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럽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협약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독일 메르켈 총리도 유로존은 새로운 규율하에 새롭게 건설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합의를 넘어선 구조적 변화를 원한다고 밝히고 국가부채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두 정상은 유로존 내 다른 회원국 사이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유로존 내의 이러한 결속 움직임이 ECB를 보다 적극적인 구제에 나설 수 있도록 설득할 것으로 예상함.
 - 많은 애널리스트들은 두 정상이 ECB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유럽 국가들이 개정안을 받아들일 경우 ECB의 역할 확대에 반대해 왔던 독일이 암묵적으로 ECB의 시장개입을 허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그러나 영국과 같은 나라들은 자국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예산 감독안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유로존 내에서도 각국 의회와 국민들이 개정안을 지지할 지는 불확실하며, 개정안의 내용이 유럽문제의 해결책을 기대해 온 금융시장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도 불분명함.

- 사르코지 대통령은 2012년 3월 말까지 개정안의 초안마련과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으나 프랑스에서도 5월 대선과 6월 총선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일부 국가가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경우 개정안 통과 절차는 지연될 수 있음.
- 유럽 재판소의 역할에 대해 각국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독일과 이를 반대하는 프랑스 간에 이견이 있었으나 유럽 재판소에 각국 정부의 법률 이행여부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는 수준으로 합의함.
 - 메르켈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 재판소가 각국의 예산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검토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면서 국가 예산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 역할을 수행하기를 원했으나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각국 의회의 상위에 존재하는 초국가적 권한 부여를 반대함.
 - 결국 메르켈 총리는 유럽 재판소가 개별 국가의 예산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지만 각국의 법률에 마련된 국가부채 제한 규정이 EU 협약에 부합되도록 이행되고 있는지를 규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함.
 - 개정된 협약은 각 국가가 적자예산 한도를 법제화 하도록 요구하게 되며, GDP의 3%를 초과하는 적자예산에 대해 유럽 재판소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각 국가가 누적 부채규모를 GDP의 60% 수준으로 감축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함.
- 두 정상은 EU 협약 개정안 마련을 위해 유럽안정기구(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운영방식과 유럽재판소의 제재방법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며, 유로본드 발행에는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함.
 - 독일은 2013년 출범 예정인 5천억 유로 규모의 유럽안정기구에 대한 민간 투자자 참여 요구를 철회하고 출범시기도 2012년으로 앞당기는 것에 합의함.
 - 메르켈 총리는 프랑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럽안정기구의 작동에 있어 만장일치 대신 다수결의 형태를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이에 사르코지 대통령은 정부가 EU 협약을 위반할 경우 자동적으로 제재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반대입장을 철회함.
 - 한편 두 정상은 유로본드가 이번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유로본드 발행에 대한 반대 입장을 확실히 함.

(New York Times, 12/5)